

‘카리스마와 권력, 인권, 비즈니스, 그리고 과학...’

12월을 매듭지은 저술 코드

《부도덕한 카리스마의 매혹》 《참여 정부, 절반의 비망록》 《세계는 평평하다》 《세계인권사상사》 《내 안의 유인원》 《구글 스토리》
《코리아네트 경영》 《박찬욱의 몽타주》 《골렘, 과학의 뒷골목》 《만화 한국사 바로보기》...

일 년을 마무리하는 12월. 각 언론은 초순경부터 ‘부글복스’가 내놓은 번역서《부도덕한 카리스마의 매혹》(진 립먼 블루먼 지음)에 주목했다. 거의 예외가 없이 모든 신문들이 이를 다룰 만큼 책이 전하는 메시지는 세인의 눈길을 끌기에 충분했다.

그중 12월 3일자 <한겨레>는 서평 서두에서 “이승만은 죽을 때까지 대통령을 해먹으려다 4·19혁명으로 쫓겨났고, 박정희는 측근에게 피살되어서야 18년 독재의 손을 놓았으며, 재벌 기업인은 적은 지분으로 기업군을 좌우할 뿐 아니라, 회삿돈으로 ‘비자금’을 만들어 닦아먹거나 정치권과 짝짜꿍 놀아나면 서도 권좌에 머문다”고 현실을 개탄했다. 서평자는 “대체 이런 해괴한 일이 왜 일어나는 걸까, 이를 막을 수는 없을까”라고 되물으며 “《부도덕한 카리스마의 매혹》은 그 답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책의 의미를 높이 샀다. <한겨레>는 그래서 “임기에 제한을 두고 리더선택 절차를 보완해야 하며, 존경받으며 떠날 수 있는 장치를 만들고, 정책과 절차를 투명하게 하고,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며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따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은이의 제안에 공감을 표하기도 했다.

이 무렵 다같이 ‘대통령’을 화두 삼은 책, 《대한민국 사람이 원하는 진짜 대통령》과 《참여 정부, 절반의 비망록》 두 권이 각기 김영사와 개마고원에서 출간돼 관심을 끌었다. 그 중 《참여 정부, 절반의 비망록》에 대해선 현직 대통령에 대한 ‘시각’의 차이 만큼이나, 신문마다 조금씩 다른 비평 태도를 보였다. <동아일보>는 “전체를 관통하는 줄거리는 상식과 양심에 따라 행동하고 탈권 권위에 앞장선 노 대통령의 인간적 모습”이라고 파악하는 한편, “또 하나의 ‘현실 정치용’ 대통령 찬가”라는 느낌을 지우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이에 비해 같은 날짜 <서울신문>은 “‘역대 대통령 임기 중 최악의 지지율을 얻고 노 대통령의 국정 운영의 실제와 이미지, 결과물들 사이에 간극은 없을까’라는 의문으로 책을 펴낸” 지은이의 동기를 소개, 사뭇 다른 뉘앙스의

시각을 보였다.

12월 10일자 <경향신문>을 비롯한 주요 일간지들은 창해출판사가 펴낸 토머스 프리드먼의 《세계는 평평하다》를 대서특필했다. <경향신문>은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 토머스 프리드먼이 책을 통해 밝힌 바, “세계를 평평하게 만든 평평화^{평평화} 동력으로 베를린 장벽 붕괴, 윈도의 출현, 네스케이프 출시, 오픈소싱^{open-sourcing}, 아웃소싱^{outsourcing}, 공급사슬^{supply chaining} 등 10가지가 있다”며 “하나하나의 동력은 고립돼 있지 않고, 2중, 3중으로 융합하면서 전혀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20대 80의 사회는커녕 99.8대 0.2의 세계화’에 치우친 현실을 들어 “그럼에도 자기 아이들이 인도와 중국 아이들에게 일자리를 빼앗기는 상황을 앞당겨 걱정하는 것을 보면 그가 전해주는 변화의 흐름을 꼼꼼하게 흡수하되 이 책은 결국 미국과 미국인을 위한 책”이라고 지적했다.

조효제 교수 번역으로 도서출판 길이 펴낸 《세계인권사상사》도 주목받은 책 가운데 하나다.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한겨레> 12월 9일자를 통해 “이 책은 인권연구가 국제정치나 법학의 부속물로만 여겨졌던 우리의 전통에 비추어볼 때 인권의 발전사뿐 아니라, 역사적 현실과의 연관 속에서 인권의 이론과 실재를 실천적으로 서술함으로써 본격적인 인권연구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는 결코 적지 않다”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같은 날짜 <한국일보>는 김영사가 펴낸 《내 안의 유인원》(프랑스 드 발 지음, 이충호 옮김)에 시선을 두었다. 신문은 책의 내용을 빌려 “침팬지가 암컷을 차지하기 위해 폭력을 행사하는데 반해, 보노보는 폭력과 갈등, 분노와 다툼을 잠재우기 위해 섹스를 이용한다”며 “보노보와 침팬지의 행태를 인간과 다양하게 비교 설명한 뒤 지은이가 내리는 결론은 인간의 내면에는 위계질서를 강조하는 침팬지와, 유대나 사랑에 익숙한 보노보라

는 두 종의 유인원이 함께 자리잡고 있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랜덤하우스중앙이 펴낸 《구글 스토리》도 도하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12월 22일자 <매일경제신문>은 “《구글 스토리》엔 구글의 성공 과정과 함께 타 경쟁업체들의 탄생과 성장, 발전과정 등 검색의 히스토리를 들려준다”며 “저자 존 바텔은 생생한 내용을 담기 위해 구글의 공동창업자 세르게이 브린과 래리 페이지, 구글의 CEO 에릭 슈미트 등 실리콘밸리와 월가를 주 활동 무대로 한 400여 명의 IT관련자들을 3년간 인터뷰했다”고 책의 내용과 가치를 소상히 전했다. 신문은 특히 “무분별한 방문자보다는 관심있는 단 한 명의 방문이 돈으로 연결된다는 사실을 가장 먼저 간파한 ‘구글’의 성공요인”에 주목하는 한편, “이 책이 검색과 구글에 대한 모든 것이라고 단언할 순 없지만, 인터넷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꼭 한번 읽고 넘어갈 필독서”라고 권했다.

새로운 틀의 기업경영론 《코리아니티 경영》(휴머니스트刊)도 일간지 서평란에 일제히 소개된 책이다. 12월 9일자 <한국일보>는 한국경제의 침체와 저성장 국면을 돌이키는 처방이 절실함을 들어 “코리아니티Koreanity 경영”이 필요하다”는 저자의 주장에 밀줄을 그었다. 신문은 “저자가 만들어낸 영문 신조어인 코리아니티경영은 우리의 잠재적 특성과 문화적 정체성을 파악하고 이를 경영에 활용해 세계적인 보편성과 매혹을 만들어내는 일을 말한다”고 정의하며 “즉 프랑스 물건을 살 때 그들의 멜랑콜리한 삶의 일부를 생활로 가져온다는 느낌을 갖는 것처럼 우리도 문화적 브랜드 이미지와 프리미엄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박찬욱의 몽타주》도 모든 신문들이 문화면 대문기사로 올린 책이다. 그 중 12월 13일자 <조선일보>는 일찍이 ‘영화 보기의 은밀한 매력—비디오드롬’ 등 “탄식을 이끌어내는 독특한 해석과 매혹적이면서도 리드미컬한 문장은 강렬한 자력으로 독자들을 사로잡았던” 박 감독의 이력을 들며, “주로 박찬욱 감독이 유명해진 이후에 쓴 에세이와 서면 인터뷰, 제작일지 등을 담은 산문집 ‘몽타주’는 특유의 ‘매력적인 뻔뻔함’을 내세우는 진솔한 이야기들도 실렸다”고 소개했다. 신문은 또 “한국에서 나만큼

영화 찍기 전에 스토리보드를 자세히 만드는 감독은 없을 것”이라며 “글 역시 영화처럼 이모저모 따져 보고 오랫동안 생각해서 쓴다”는 저자의 변을 첨가하기도 했다.

새물결에서 펴낸 《골렘, 과학의 뒷골목》은 최근의 ‘황우석 사태’와 맞물리며 또다른 의미를 낳은 책이다. 온·오프라인 매체들이 이를 소개하기도 했는데, 특히 12월 17일 <오마이뉴스>는 “황우석 교수와 노성일 이사장의 기자회견을 따로따로 듣고 있노라면 각자의 말이 맞는 것 같아, 도무지 뭐가 뭔지 모르겠다”며 “때마침 나온 《골렘, 과학의 뒷골목》은 맞춤형 텍스트”라고 반가워했다. <오마이뉴스>는 책의 내용을 발췌, ‘외국에선 과학 논쟁 검증 어떻게 했나?’고 궁금해 하며 “제임스 맥코넬에 이어 조지스 옹가는 화학물질 형태로 저장된 기억을 이 동물에서 저 동물로 옮길 수 있다고 믿었으나, 결국 이 이론은 신빙성이 없는 이론으로 결론이 나 기억 이전을 주장한 사람들의 패배로 끝난다”고 상기했다. 서평자는 결국 “이 책을 덮으며 드는 생각은 황우석 사건이 어느덧 과학자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과 사회의 문제가 되었다는 점”이라고 말을 맺었다.

만화가 이현세가 오랜만에 펴낸 《만화 한국사 바로보기》 또한 언론의 시선을 끈 책이다. 12월 19일자 <한겨레>는 어린이 만화 복귀작으로 그가 한국사를 선택한 데 대해 “미래를 짚어지고 갈 아이들이 한국사를 잘 모를 뿐만 아니라 자긍심도 갖고 있지 않아 안타까웠다”는 작가의 말을 소개했다. <한겨레>는 또 “처음 시도한 학습만화지만, 이씨의 전매특허인 스케일 큰 화면 구성과 강렬한 시각적 이미지는 여전하다”며 “특히 축소하거나 과장하는 일반적인 만화 기법과 달리 최대한 사실에 가깝게 표현하는 ‘극화체’ 기법을 활용해 한국사의 역동성을 잘 형상화했다”고 좋은 평가를 내렸다. **■**

<출판저널> 편집부

